

##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대림절:** 구주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 ② **수련회:** 신년맞이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현 공동체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참조).  
장소: 2596 Cambridge, TeAwamutu  
일시: 2012년 1월 7일(토)~8일(주일)

③ **단기선교:** 오는 수요일 바누아트로 11명이 출발합니다. 많은 협조 감사드리며 계속 중보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11.30-12.7 팀장: 이태한 팀원: 진혜령, 김순자, 방명아, 김선화, 육이수, 최은수, 조주찬, 권준현, 이민우, 김규현)

④ **총회:** 선교회 총회가 오늘 1부 다음과 같이 예배 후 있습니다.  
1남: 본당 로비 (이태한 목사) 2남: 본당 찬양대석 (현석호 장로)  
3남: 계수실 (이광희 장로) 1여: 유아실 (김순자 권사)  
2여: 아동부실 (정희자 권사) 3여: 찬양대실 (이규임 권사)

⑤ **협력:** 기접형제 골수 이식을 위한 기증자 선별 검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조건: 혈액형 A, 방법: 혈액검사)  
장소: NZ Blood Service  
71 Great South Rd Epsom (Tel. 523-5733)  
116 Cavendish Drive, Manukau (Tel. 263-4667)  
441 Lake Rd Takapuna (Tel. 489-8858)

⑥ **티켓:** 북한돕기 윤복희 권사 초청 공연 일시: 12월 3일(토) 저녁 7시 30분  
장소: North Harbourside Church 48 Esmonde Rd. Takapuna

⑦ **섬김:** 밀알 선교단(장애우 식사)을 섬길 성도는 신청바랍니다(담당 현석호 장로, 매월 4째주 토요일).

## 갈보리 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NIBC(한동대 선교단체)

### 국내 선교지

- ▷밀알장애우 봉사

## 12월 교회 일지

- 대림절 2:  
12월 4일 (주일)
- 대림절 3:  
12월 11일 (주일)
- 대림절 4:  
12월 18일 (주일)
- 성탄절, 송년주일:  
12월 25일 (주일)
-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토요일)

## 12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4일	이동술	박형길	이성희
11일	최득수	김성희	이숙희
18일	김교섭	김정민	이순옥
25일	정관영	진혜령	김수원

예배안내: 추미선/이경자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태한
- 부목사 : 심정진
- 교육전도사 : 진혜령
-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 휴무장로 : 김영길
-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득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 지휘 : 윤형권
- 반주 : 송민영, 유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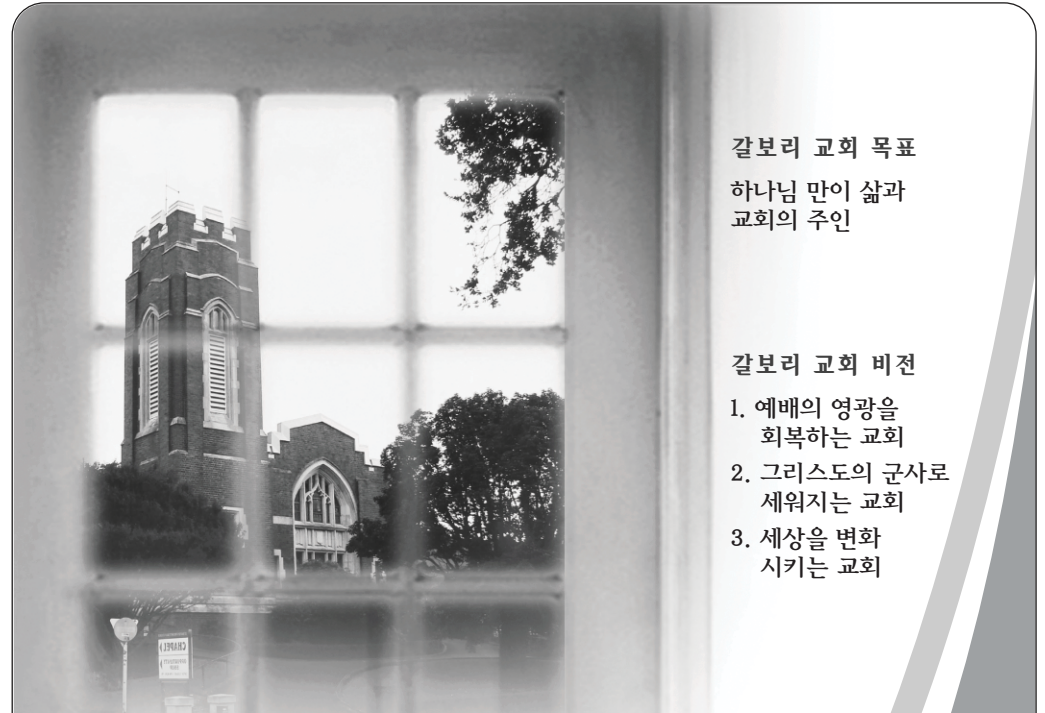
## 교우 소식

이사: 방명아(조재근) 집사

312/ 184 Symonds St Grafton 전화: 307-0360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기접 영세의 활주 이식을 위한 기증자 선별검사에 많은 지원자가 있도록, 이 일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감절이나 더 하도록, 기접이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도록.
2. 여러 질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비자 문제, 생업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3. 교회 건물구매에 모든 성도의 지속적인 기도로 관심을 가지도록, 각 선교회에서 빠른 임원들이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회를 잘 섬기도록.
4. 바누아트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경험하도록, 선교팀이 바누아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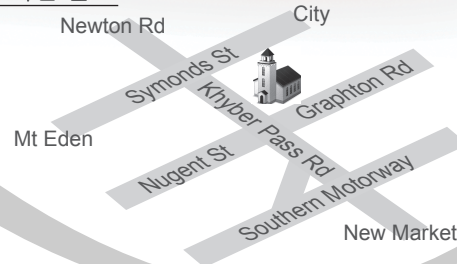
##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찾아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 새벽기도 금요일 5:50PM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11월 27일

주보 13권 48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967:9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9장	다함께
*성서교독	115. 구주 강림(1)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76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5:12-16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교회의 능력, 권세	이태한목사
찬송	492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 순서 안내 | 다음 주 기도: 이동술집사 12월 11일: 최득수집사

건축 헌금 | 지난 주 헌금: \$100.00 총계: \$602,691.19

##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원미경집사			
성경봉독	에스겔 17:8-10	인도자		
설교	이루게 하려 하였으나	심창진목사		
찬송	감사해요 깨닫지...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 주 기도: 박형길형제

## 성서교독 115. 구주 강림(1)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팔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삼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박제용장로			
성경봉독	히브리서 4:14-16	인도자		
설교	공활을 얻으라	심창진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415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 애찬 기도: 김교섭장로  
다음 주 기도: 이성희집사

## 갈보리 칼럼

###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묵안드립니다.

정들었던 오를랜드를 떠나 이곳 캔버라에 온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갑니다. 늘 눈감으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오를랜드의 모습은 이제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곳 캔버라 날씨는 호주에서도 가장 춥다는 겨울이 있고 (밤엔 영하 5-6도) 여름 한낮의 햇살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다와는 2-3시간 거리 정도 떨어져 있고 분지라서 마치 한국의 대구날씨 같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캔버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캔버라는 시드니와 멜번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시드니와 멜번이 서로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바람에 결정을 못 하고 그 중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로 결정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완벽한 도시설계를 통해 지어진 도시입니다. 1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답게 고풍스러운 건물은 거의 없고 모두가 현대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사당 건물과 웅장한 전쟁박물관 사이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커다란 Burley Griffin 호수가 캔버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를 형성하는 변화가는 오를랜드 정도 크기이지만 현대식 건물만 있어서 우아함이나 고풍스러움은 전혀 없습니다. 시티에 있는 소풍물은 어찌나 큰지 잘못하면 길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호주 내에서 8번째 도시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작아서 어디든 차로 20분 내외면 도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곳에 있는 ANU(호주 국립대학)는 호주 내에서 제일 좋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로 명성이 자자하여 많은 한국인 자녀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브라이언 슈밋 도 이곳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호주 내에선 가장 수준이 높다는 (정부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서) 평을 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나 보던 캥거루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산이나 들에서 뛰놀고 있고 심지어 집 정원까지 들어오는 광경을 봅니다. 뉴질랜드의 포션이 차에 치여 죽듯이 이곳에선 캥거루가 차에 치여 죽어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보는 곳... 과연 이곳이 호주임을 실감하곤 합니다.

이곳 캔버라에는 13개의 한인교회가 있고 교민은 2000-3000명 정도라 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어른보다는 청년(70여명)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며 놀란 것은 청년들의 뜨거운 신앙 열기였습니다. 청년들은 예배 마치고도 남아서 2시간 이상 쉼 모임을 하는데 잘 훈련된 셀 장들이 열정적으로 셀 원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심일조를 하는 청년들이 많으며 수요예배에도 40-50여 명씩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당을 울리고 있습니다. 열분도 안되는 어린 집사님들이 청년들을 위해 매주 밤을 준비해서 나누는 모습과 고마운 마음으로 청년들이 자진해서 청소와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가대도 없는 작은 교회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도전을 청년들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일했으며 또 틀에 박혀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캔버라에는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많아서 그들을 전도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잘 보살펴 주고 신앙을 키워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 빼고 나이가 제일 많습시다. 갈보리 교회에서는 재롱(?)도 뽀도 해야 할 나이였지만 여기에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분만 의지하며 살아갔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병상에 누워있는 기섭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은혜가 주의 귀한 자녀인 기섭이에게 임하시라 완쾌시켜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황량한 호주 들판을 2-3 시간 달려 바닷가로 가면... 오를랜드와 비슷한 해변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향수를 달래려 그 먼 길을 벌써 몇 번씩 다녀왔습니다. 늘 그리움을 가슴에 이만큼씩 쌓아두고 삽니다. 이젠 마음의 고향이 되어버린 오를랜드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려야 할 복..... 그중의 하나가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늘 오가는 소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갈보리 교우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1. 11. 25

캔버라에서 김영길/신경화 드림

mobile)0061 040 676 0819 / home)0061 02 6273 4246